

2014년도 MBC사우회 정기총회 개최

역대 최다회원(184명)참석 · 감사 중임



금년도 사우회 정기총회가 2월27일(목)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려 이사회 의결을 거친 2013년도 결산과 2014년도 예산(안)을 수정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한 2년 임기가 만료된 감사 임국희(ANN), 감사 이해결(업무) 두 사람을 중임시켰다.

총회에서는 또 2004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사무처장과 총무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사우회 발전에 기여한 백하현 전 상임부회장에 감사패를 수여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역대 가장 많은 184명의 회원이 참석했으며 서규석 고문등 311명의 회원이 위임장을 보내왔다.

(사진 : 박한성회원)



이사회, 올 예산 3억 2천만원 의결

2월18일(화)에 열린 2014년도 제1차 이사회는 올해 사우회 예산을 3억2천여 만원으로 확정,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4천여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부동산(상암동 신사옥 화원) 전대(轉貸) 예상수입이 1,800여만원, 회보 광고 수입이 1,400여만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사우회가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상암동 신사옥 화원(花園)은 4월 중순에 개업할 예정이다.

한편, (유)문화보험도 2월17일(월)에 올해 첫 이사회를 열고 2013년도 결산과 2014년도 예산 2억 45만원을 확정했다. 문화보험의 올 예산은 지난해보다 1,500여만원 줄었는데 이는 MBC 계열사들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보험수수료가 줄어 들고 있기 때문인것으로 나타났다.

사우회 상임 부회장 보직 변경

사우회는 김수량 회장의 운용경비 절감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상임 근무자 한명을 줄이기로 하고 2월18일에 열린 제1차 이사회에서 백하현 상임 부회장의 보직을 비상임 부회장으로 변경하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임 부회장이 맡고 있던 (유)문화보험 대표이사는 당분간 김수량 회장이 겸직하도록 했으며 사우회 사무처는 박종규 총무이사 체제로 운영하도록 했다.

MBC 새 대표이사에 안광한 前 부사장 선임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는 지난 2월21일(금) MBC 새 대표이사에 안광한 MBC플러스 미디어·MBC 스포츠 사장을 선임했다.

안광한 신임사장은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으며 1982년에 MBC에 입사하여 편성국장, 편성본부장, 부사장 등을 역임한 뒤 지난 해부터 MBC플러스미디어·MBC스포츠 사장으로 재직해왔다.

제32대 MBC대표이사로 선임된 안광한 신임 사장은 2월25일 MBC 공개홀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안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MBC에는 일등(一等) DNA가 내재되어 있으며 이 일등 DNA로 일등 MBC를 재건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귀빈으로 참석한 김수량 사우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MBC 전 사원이 안 사장을 중심으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 세계 최고의 방송사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안 사장의 취임식에는 김수량 사우회장을 비롯해서 김문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김삼천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참석해 안광한사장과 MBC의 앞날을 축하해 주었다.



권재홍 부사장 등 MBC 새 임원진 인사

MBC는 3월 6일(목) 이사회를 열어 아래와 같이 임원들을 선출했다.

부사장 권 재 홍(보도본부장)

경영기획본부장 백 종 문(편성제작본부장) 보도본부장 이 진 숙(위성전자사장)
편성제작본부장 김 철 진(콘텐츠제작국장) 디지털본부장 김 성 근(MBC C&I 이사)
글로벌사업본부장 오 정 우(경영지원국장) 예능본부장 원 만 식(예능본부장)
드라마본부장 장 근 수(글로벌사업본부 특임국장)

강릉·삼척MBC 합병 - (주)MBC영동<가칭>으로

MBC는 2월13일에 열린 이사회에서 강릉MBC와 삼척MBC의 합병을 승인했다. 이는 강릉MBC가 삼척MBC를 흡수·합병하는 것으로, 통합 후 회사 이름은 (주)MBC영동<가칭>으로 바뀌게 되며 합병 날짜는 2014년 6월 30일이다. 이번 합병은 2011년 9월 마산MBC와 진주MBC가 통합돼 출범한 (주)MBC경남에 이어 두 번째 계열사 합병이다. 강릉MBC와 삼척MBC의 합병은 4월까지 주주총회를 열어 통합 안건을 의결하고 방송문화진흥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면 마무리된다.

MBC C&I 는

드라마·교양·예능 프로그램 등 방송콘텐츠
제작·유통에서부터 방송 중계·편집 등
방송시스템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 차별화된 방송 인프라를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송문화산업의
새 지평을 여는 핵심 주역이 되겠습니다.



MBC C&I

회원동정



권혁화(ANN)

고전번역교육원 연수와 정 입학시험에 합격. 시험은 사서(四書)에서 출제됐고 130명이 지원해 50명이 합격했다. 사우회 한문동호회가 배출한 첫번째 합격자다.



고대석(보도)

한국연구재단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사업에 선정되어 대구대학교에서 글로벌저널리즘과,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강의한다.



김세하(기술)

시설물 정밀안전 진단업체인 (주)경기안전진단 기술고문으로 취임했다.



김재철(보도)

3월 1일 사천시에서 「바람아, 또 오데가노」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6월 사천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새누리당에 입당했다.



류근중(관리)

지난 해 연말 본사를 정년퇴직 한 후 올 1월 불교방송(사장 이재원) 경영고문으로 선임됐다.



박기병(보도)

작년 12월 연세 언론홍보 최고위과정 송년회에서 '50년 한길기념패'를, 춘천교육대학교 동문회에서 언론인 참전기 발간(發刊)에 대한 공로패를 받았다.



박노홍(보도)

양영철 신임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을 도와 2년간 한국방송기자클럽 살림을 이끌어 갈 사무총장으로 선임됐다.



송원근(관리)

한국연구재단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사업에 선정되어 천안 호서대학교에서 동서 스토리텔링과 커뮤니케이션을 강의한다.



양영철(보도)

한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객원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으로 선출되어 2월 28일 취임식을 가졌다. 임기는 2016년 2월까지 2년이다.



유민수(관리)

최근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이름을 유승재(劉昇哉)로 바꿨다.



이궁희(편제)

작년 12월 중국 항주에 있는 浙江传媒大學의 방문교수로 초빙되어 학부생 대상 강의와 더불어 중국 방송사 CEO들을 상대로 방송경영에 대한 강의를 진행 중이다.



이명세(관리)

파주시 노인회 회장. 4년 임기를 마치고 재출마해 무투표 당선됐다. 4월1일부터 제2기 4년 임기를 시작한다.



이해성(보도)

3월 3일 부산일보 강당에서 「이해성의 부산 날개달기」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6월에 실시되는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다.



임무혁(관리)

강릉·삼척MBC 사장을 마치고 지난 1월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처장으로 선임되었다. 임기는 2017년 2월까지 3년이다.



조현모(보도)

올해 3월부터 중국 심양에 있는 동북대학에 입학하여 중국어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홍영욱(보도)

작년 12월 31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으로부터 자원봉사자상을 수상했다. 현재 용산전쟁기념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해설 자원봉사를 5년째 계속하고 있다.

등산대회 4월30일(수) 등 봄철 행사 일정 확정

등산대회 : 4월30일(수) 10:00부터 북한산 둘레길을 걷기로 했다. 정확한 코스는 사전답사를 한 뒤에 회원들에게 엽서로 개별 통보한다.
골프대회 : 5월8일(목) 충주 중원골프클럽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티업시간 등 자세한 일정은 추후 참가 확정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낙시대회 : 5월22일(목) 07:00 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장소는 김포와 강화 등지를 현장 답사한 뒤 결정한다.
바둑대회 : 6월4일(수) 사우회 사무실에서 실시한다. 오전 10:00에 대진추첨이 실시되므로 늦지않게 나오셔야 한다.
한문동호회 : 변함없이 매주 목요일 10:00~12:30분에 진행한다.

원로회원 산업시찰 : 6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장소와 날짜 등을 검토 중.
회원 단합대회 : 5월16일(금) 양주 문화동산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개별 통지 할 계획이다.

|알림|

이현우(ANN)회원을 중심으로 아코디언 동호회를 만들려 합니다. 4월부터 전문가를 모시고 교습을 할 계획이며 3월 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인원은 선착순 20명입니다.

사우회 사무처 컴퓨터 교체 등 새 단장

사우회 사무처는 지난 1월 MBC의 지원을 받아 사무용 컴퓨터 5대를 모두 교체했다. 새 컴퓨터는 2013년에 제작된 것으로 메모리 용량이 1기가에서 4기기로 대폭 늘어났으며 모니터는 17인치에서 23인치로 커졌다.

사무처는 5년 전인 2008년에도 MBC의 지원으로 사무용 컴퓨터를 교체한 바 있는데 이 컴퓨터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도가 느려지고 화면이 다운되는 등 업무처리에 불편을 겪어왔다. 사무처는 또 회장 책상을 출입문 쪽으로 옮기고 상근 요원들의 책상도 회장 책상 주변으로 집중 배치해 안쪽 공간을 넓혔다.

사무실이 예전보다 훨씬 넓어 보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고 TV도 보다 편한 자세로 시청할 수 있게 됐다며 사무실을 찾아오는 회원들은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MBC 아카데미

- ◆ 미디어융합형 인재교육
- ◆ 귀농교육, 문화센터 등 평생학습
- ◆ 스피치최고위과정 / Maestro, U-tube Making 과정
- ◆ 실용음악 인재 발굴과 육성, 뮤직스쿨

아버지와 아들의길

아버지와 아들이 전국의 길을 걸으며
데면데면했던 관계를 대화로 풀어나갑니다.

참가신청 <http://biz.mbcac.com>

경.조사

팔순
여인철(ANN)4/12 이준희(관리)4/17 최인준(관리)5/1 황재원(기술)5/1
이정오(기술)5/12 이철원(ANN)5/15 성준현(업무)5/23 송재선(업무)5/26
장기완(미주)5/30

고희
정대용(편제)4/10 박명하(대전)5/5 고영일(업무)5/11 최대홍(관리)5/16
이무영(편제)5/24 이대교(관리)5/27 이영하(기술)5/27

회갑
황희만(보도)4/2 김민호(보도)4/11 이명기(편제)4/20 이동한(관리)4/27
김영(편제)5/3 박종순(ANN)5/21

결혼
이원하(기술)차남2/8 정인영(편제)장녀2/8 박수명(편제)3남2/15
김흥배(편제)차남2/28 김형국(기술)차녀3/14 김상기(보도8기)장남3/15
신상용(편제)차녀3/16 신민철(관리)장녀4/5 황길수(보도)장남4/27

부음
우종범(편제)장인상1/20 김종윤(기술)부친상1/21 장동철(기술)부친상2/5
한순애(관리)부친상2/15 김형구(편제)부친상2/19 박성희(관리)모친상2/19
홍용선(관리)장모상2/26 오범성(관리)장모상3/6 유문식(관리)장모상3/10

전화/주소 변경

편제 : 金盛浩 김포시 김포한강8로 173-58, 207-1404(마산동 경남아너스빌)
민창환 010-3620-7830
박종진 010-8877-3075 안산시 상록구 후곡2길 1, 102호 (사동)
성철중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로 66-18 스마트빌 3-102
오순심 010-3724-1023
보도 : 김규서 010-8991-4285 031-281-2326
김동한 010-5347-5180
김민호 중구 소월로2길 30 남산트라펠리스 1304호 (남대문로5가)
오효진 송파구 올림픽로 135, 213-1201 (잠실동 리센츠A)
윤재근 서초구 방배천로18길 11, 111-703 (방배동 롯데캐슬아르떼)
최영언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508, D-305 (사리현동 현대그린A)
홍윤호 010-5116-7859
기술 : 장정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411번길 45, 2층 (비산동)
정재순 강남구 도곡로78길 22, 103-1503 (대치동 삼성A)
업무 : 권오룡 010-5384-5619 배성룡 010-3615-1388
백병기 010-6388-3225
황귀철 서초구 강남대로47길 25 서초빌딩 401호 (서초동)
관리 : 권재욱 안성시 금광면 상촌새말길 3-120 (청남사)
김성한 010-2756-6286
김영수 서산시 부석면 인정로 600-36
박연식 010-8898-8610 이용재 010-5253-7002
오영환 010-3754-4405 유조동 010-5303-1100
임무혁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385, 1102-403 (중산동 중산마을)
전용립 과천시 장군마을1길 62 청도주택 101호 (주암동)
조병영 010-3745-4979
전주 : 이상립 010-2630-4531

회원/ 회비관리

평생회비
한재수(관리)1/17 엄기정(관리)1/21 이태술(편제)2/10 하재영(편제)2/10 김일만(편제)2/10 황인뢰(편제)2/10 신영철(보도)2/11 안성일(보도)2/13 박수부(업무)2/18 김경철(편제)2/18 김형태(편제)2/19 서영호(보도)2/27

연회비
1월 : 고병조(14) 권항택(14) 김광용(13-14) 김광안(14) 김병덕(14-17,80세 납부끝) 김부영(14) 김상옥(14) 김상호(14) 김성한(14) 김영금(11-14) 김윤근(14) 김재수(12-13) 김정수(보도,14) 남기두(14) 문성수(14) 박근학(15-19) 박기윤(14) 박세림(14) 박춘평(14) 배상호(14) 서정호(14) 서정훈(11-15) 손영조(14) 신무성(14) 양홍열(14) 엄웅열(14) 염영수(14) 오인환(14-18) 윤남현(14) 이상원(대구,14) 이원하(15-19) 이종화(14) 장명호(09-13) 정갑표(14) 정명환(14) 정봉일(14) 정상화(14) 정승호(14) 조무영(14) 차명륜(14) 최준식(16-24,80세 납부끝) 한병우(11-14) 홍진숙(14)
2월 : 강대형(13) 강복주(14) 고춘호(13) 권태규(14) 김병택(14) 김영균(14) 김종세(12-13) 김중오(14-18) 김진희(14) 김창동(14) 김후선(14) 남의균(14) 맹광호(13) 맹석기(13-14) 민경창(14) 박승선(12-14) 박연식(14,80세 납부끝) 배종두(07-14) 백낙왕(14) 백명순(14-18) 백중석(14-15,80세 납부끝) 성준현(12-14) 송기남(11-14) 신기준(14) 신형창(14) 심준보(14-15) 안병태(14) 양남종(14) 엄기원(14) 연구철(15) 오남렬(14) 오두영(14) 오승룡(14,80세 납부끝) 유홍철(14) 이기선(14) 이동섭(13-14) 이두표(11-14) 이명구(10-14) 이보근(16) 이상림(14) 이성구(14) 이승재(14) 이영호(14) 이완수(14) 이종구(14,80세 납부끝) 이처경(14-15) 이하결(14) 이한익(14,80세 납부끝) 이환의(10,80세 납부끝) 전지웅(14) 정석진(14) 정연호(11) 정영웅(14) 정준모(14) 정진도(14) 조성식(14) 주규만(13-14) 차기동(14) 최영돈(13) 최영성(15) 최호철(14) 표찬일(14) 홍윤호(14) 홍이표(14) 황윤환(12-14) 황진환(14)

신규입회
金敬喆(편제) 010-8958-3911/ 02-3667-3911
영등포구 문래로 82, 106-1803 (문래동3가 힐스테이트)
金一萬(편제) 010-9045-3627/ 070-7521-3627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487, 1821-1203 (일산동 후곡마을)
金炯泰(편제) 010-6283-1258/ 010-4917-1213
마포구 신수로 15 강변힐스테이트 107-1703호
徐文植(편제) 010-5355-6215 02-333-6215
마포구 성암로7길 3, 202-1601 (중동 성산현대A)
徐榮鎬(보도) 010-5382-0088/ 070-4413-5841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67, 710-801 (주엽동 강선마을)
申英徹(보도) 010-5384-0047/ 070-8950-7024
강남구 학동로68길 29, 110-1604 (삼성동 힐스테이트)
安聖日(보도) 010-9012-5202/ 02-534-5031
서초구 고무래로 94, 201-1702 (서초동 서초4차현대A)
嚴基正(관리) 010-9105-2936/ 02-387-3802
은평구 불광로10길 20, 503호 (불광동 선우아파트)
李泰述(편제) 010-8981-0679
강남구 남부순환로365길 42, 2-205(도곡동 도곡한신A)
河在英(편제) 010-8997-0863/ 02-982-7686
강북구 솔샘로65길 73
韓在壽(관리) 010-9199-1401/ 031-813-134
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로 79, 402-1401 (장항동 호수마을)
黃仁雷(편제) 010-8574-9378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105, 2-302 (구미동 벽산빌라)

신입회원 이야기



작년 1월부터 안식년이 시작되었는데 갑자기 시간이 많이 생겼다 보니 뭔가는 해야겠다는 생각에 일주일에 하루정도 봉사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러던 중 동덕여자대학교에서 강의요청이 왔다. 걱정이 되었지만 불러준 것만도 감사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갔다. 사진을 오랫동안 찍어왔지만 다른 분들의 경험과 기술을 듣고 싶어 2월 한 달은 사진학원에도 다녔다. 몇 건의 행사사진 촬영의뢰가 들어와 사진을 찍기도 하고, 혼자 기차를 타고 훌쩍 떠나보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3월이 되어 대학에서 강의가 시작되었는데 경험도 별로 없고 준비도 덜된 상태라 많이 서툴렀지

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듬어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일주일동안 강의 때문에 부담이 되었다가도 수업이 끝나면 그렇게 기분이 상쾌할 수가 없었다. 5월 말에 동덕여대 방송연예과 스튜디오와 부조정실 책임자가 되어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6월부터는 매일 출근하게 되었다. 강의도 하고 근무도 하게 되었으니 나로서는 제2의 직장이 생기게 된 셈이다. 지난 32년간 문화방송에서 해왔던 일을 다시 하면서 매일 출근할 곳이 생겼으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뿌듯해졌다. 내가 해왔던 부분은 어려움이 없었지만 다른 쪽은 선배와 동료들의 도움과 자문을 구해가면서 하다 보니 이제 제법 자리가 잡혔다는 느낌이 든다. 가끔은 회사와 동료들 생각이 날 때가 있다. 얼

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근무했던 많은 사람들과 떨어져 있으니 못견디게 그리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오래 전에 찍었던 사진 속에서 젊은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더더욱 그 시절이 그리워진다. 그렇지만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또 다른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작지 않다.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 온 첫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했으니 난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문화방송에 근무할 때는 근무 여건 상 다른 사람들과 약속을 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이제는 그동안 보고싶었던 사람들을 자주 만나봐야겠다. 주어진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가다 보면 전에 느끼지 못한 또 다른 즐거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리라 생각하니 더욱 즐겁다.

또 다른 세상

박영태(기술)

이 사람

김영우(美洲支會)



지난 달 12일, 미국 남가주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재미(在美) 방송인 김영우(金榮羽, 85세)씨가 '미국 방송생활 50년'을 맞아 현역 은퇴식과 함께 그동안 제작한 프로그램들과 사용하던 방송 장비 일체(약 21점)를 USC한국전통도서관(Korean Heritage Library)에 기증하는 행사가 있었다. 분신처럼 애지중지하던 장비들은 이제 USC도서관의 한 공간에 그의 이름(Richard Khim)을 달고 영원히 전시되어 있다.

1961년 MBC 1기 아나운서로 입사한 그는 'TV방송 공부를 하고 싶어' 1963년 미국에 있는 Columbia College of Broadcasting in LA의 입학허가를 받아 이민을 떠났다. 홍익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한 덕에 만화영화제작소 Hanna Barbera Studio in Hollywood에서 만화배경을 그리며 공부하던 중 우연히 일본어로 방송되는 라디오 방송을 듣고 '방송인의 사명감'을 느껴 한국어방송을 시작하기로 결심한다. 동포의 숫자도 많지 않았고 한국어 신문은 물론, 마켓이나 식당도 없었던 60년대의 LA에서 문자 그대로 '맨땅에 헤딩'이었지만 그는 집요한 노력 끝에 KBS 성우 출신 서정자씨(현 시애틀 한인방송 대표), 이순재씨(엔지니아)와 손을 잡고 1965년 6월, Inglewood 지역에 있는 KTYM-FM의 채널을 빌려 매주 토요일 아침 30분간 역사적인 미국 최초의 한국어방송을 시작한다. 편성이라야 동포들의 소식을 전하는 뉴스와 노래 몇 곡이 전부였지만 방송에 대한 교포들의 반응은 대단했다. 월 30\$이던 전파사용료는 故소니아 石 여

사가 도와주었지만 나머지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힘겨운 작업이었다. 5살, 3살, 2개월 된 아들 셋을 거느린 가장으로서 공부하랴, 일하랴, 방송하랴 설 틈이 없었지만 1년여 동안 한 번도 방송을 거르지 않았다.

1974년, 한국일보 미주본사의 도움을 받아 '라디오 코리아'를 설립하여 매주 일요일 한 시간짜리 방송을 하는 한편, 1976년에는 UHF TV 방송인 'TV한국' 방송도 개설했다. 이 무렵부터 도와주는 인력이 생기게 되자 그의 활동도 다양해졌다. 1975년부터 1989년까지 14년간 남가주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의 사회를 맡았으며 1975년부터

1996년까지 21년간 한국의 날 축제 퍼레이드의 중계방송을 진행하는 등 동포 사회의 활동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마이크를 잡은 그가 있었다.

1982년, '라디오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시간 분량의 주간(週間)방송을 시작했고 198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TV방송의 모닝 뉴스를 담당했다. 이렇게 그가 한 활동 하나하나를 그대로 미주 한인방송사의 한 페이지가 되었다.

1990년대에 미국 이민자의 숫자도 늘어나고 실무 인력도 많이 생기자 그는 현업에서 한 걸음 물러나 1991년, 미주 한국일보가 MBC와 프로그램을 제휴해 개국한 KTAN-TV의 부사장

으로 취임해 방송을 총지휘했고 한인방송인협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방송 현장에서 물러난 뒤에는 Hi-Media productions을 설립하여 TV 다큐멘터리 제작에 본격적으로 몰두했는데 특히 미국 이민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자랑스런 한국인들에 관한 다큐멘터리 총 30편을 완성하고 이



〈USC로 부터 감사패를 받고〉



〈MBC시절〉

를 DVD로 옮겨 여러 곳에 기증하기도 했다. 살아있는 동안 1세기를 넘긴 한인이민사를 다룬 본격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볼 꿈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는 방송인 김영우. 이제는 90을 바라보는 나이로 건강도 좋지않고 활동도 어려워 미주방송인협회 상임고문으로 후배들의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지내고 있는 그를 보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선구자'라는 어휘가 떠오른다. 더불어 미주 지역 한인방송사에 큰 자취를 남긴 그가 MBC 사우회원이라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롭다.

글: 편집장



귀신(鬼神)을 만들었던 사람

박수명(편제)



우연한 기회에 동국대학교 조용길 교수의 '아함경'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강의 중에 나온 귀신 이야기가 나의 관심을 끌었다. (물론 이 글에서 부처의 초기 설법을 집대성한 '아함경' 강의 내용을 되짚어 보자는 것은 아니다.) 조 교수가 강의 시간에 말한 귀신 이야기의 대강은 이렇다. '우리나라 귀신은 괴기스럽고 흉물스러운 서양 귀신에 비해 참 멋스럽고 곱다. 눈썹처럼 하얀 소복에 삼단 같은 머리채를 허리까지 늘어뜨리고 곱게 태운 가리마며, 머리카락 사이로 치켜 뜬 눈을 보노라면 으스스함 속에 차가운 맛을 느낀다.' 云云...

그런데, 귀신의 그러한 모습이 실은 TV 드라마 초창기에 분장을 직업으로 가진 나와 내 동료들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는 것을 교수님께서서는 알고나 하신 애길까?

'할머니와 손자' 사이에서 구전(口傳)되어 온 귀신 이야기는 손자가 결국 이불속으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서운 부분에서 끝나기 일쑤지만 할머니가 머릿속에 그린 귀신 이미지와 듣는 손자가 상상한 귀신의 모양새가 같았는지는 글썽, 알 수 없는 일이다.

전쟁이 끝난 직후의 우리나라엔 전기가 들어오는 지역이 거의 없었다. '칠월 같은 밤'이 일상이었을 시절, 사람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에 놀라고 마당 건너 측간 옆에 세워 둔 찌리비에서 귀신의 형상과 마주쳐야 했다. 이후 발빠른 산업화가 진행되고 더불어 활자매체에서 영상 매체로의 전환은 그 속도감을 더했다.

TV로 이야기를 엮어내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캐릭터를 만들어 내야 하는 마지막 작업인 분장, 의상담당자의 고민도 덩달아 깊어갔다. 도깨비, 구미호, 저승사자, 옥황상제, 염라대왕 등... 구전되어온 동양적 귀신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 무속인이나 종갓집 老人들, 역사학자나 역

술인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채록해야 했다.

사람들은 귀신을 무서운 존재이며 재앙(災殃)의 원천이고 경외(敬畏)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일상이 바빠진 지금은 귀신도 하나의 오락적 대상으로 변했고 심지어 캐릭터화 하고 있으니 강의 시간에 불쑥 다가온 어느 교수의 귀신에 대한 설명이 아니 재미있겠는가? 영상으로 접하게 되는 귀신의 모습은 그 영상을 소비하는 주체의 유행과 현실상황에 따라 자리를 바꾸고 변화를 겪으면서 만들어지고 진화해 간다. 그러므로 미래의 귀신 이미지는 지금과 확연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때때로 귀신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나의 손에 의해 화면 속에서 형상화된 여자 귀신이나 저승사자 보다는 만능의 재주와 무불통지(無不通知)의 거침없는 귀신이면 더욱 좋겠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없애주는 불편부당(不偏不黨)한 매력적인 귀신이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스포츠 기자 생활 26년

수많은 나라를 누볐지만 두 번에 걸친 평양 취재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다. 첫 번째는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직후에 열린 통일축구대회 취재를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참가를 앞두고 북한이 MBC에게만 취재를 허용해 박영선 앵커를 비롯한 간부리porter들이 함께 방북한 것인데, 최근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지금 생각나는 일은 통일축구대회 취재를 위해 평양에 갔던 90년 10월의 이야기다. 축구 취재를 위한 평양행이었지만 나에겐 숨겨진 몇 가지 특명이 있었다. 평양 도착소식을 상대사보다 먼저 리포트 할 것, 60년대 스케이팅 스타 한필화씨를 취재 할 것 등등.

당시 평양에 들어간 축구 대표단과 20여 명의 취재단은 어느 누구도 신변안전을 보장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서 단체 행동을 위반해서는 절대 안 되는 분위기였다. 순안공항에 도착하여 버스에 오르자 옆자리에 리영일이라는 전담 안내원이 자리 잡았고 이후 그는 평양 체류 내내 나의 행동을 감시했다. 평양도착 소식을 최초의 전화리포트로 보낸 기쁨도 잠시, 북한 체육위원회 간부(부국장급)로 변신한 한필화씨를 취재하기 위해 리영일씨를 수차례 졸랐지만 호텔 밖 취재는 절대 불가하다며 '협조할 수 없다'는 답변만 거듭했다.

‘危’問賢答

서정훈(보도)

그런데 이를 깨 되던 날 밤, 갑자기 'MBC만 특별히 한필화씨 가정을 취재할 수 있게 하겠다'며 장비를 챙기라고 한다. 설레는 가슴을 안고 임종근 카메라 기자와 함께 고려호텔을 나섰다.

평양시 중구역 연화2동 체육인 아파트 11동 1302호, 고려호텔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였다. 조그만 방 2개에 매트리스가 깔린 큰 방, 소파가 놓여있는 거실, 부엌 등을 두루 촬영하고 어머니 최원화씨와 한필화씨에 대한 인터뷰가 거의 끝나갈 무렵, 현관문이 벌럭 열리더니 방송 조명과 카메라, 길다란 마이크를 든 평양중앙방송 기자가 나타났다. 그는 소파에 앉아있는 나를 향해 다짜고짜 마이크를 들이대더니 "서 선생, 평양방문을 환영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이 남쪽보다 잘 살지요?" 라고 물었다. 얼결에 당한 일이라 아무 대꾸도 못하고 있는 나를 향해 그는 더욱 거센 기세로 다그쳤다. "한마디 하세요, 우리가 더 잘 살지요?" 순간적으로 머리를 스치는 생각은 "아, 이 자들이 내 답변을 선전용으로 사용하려는구나"였고 그러니 더욱 답변하기가 망서려졌다. 기자로 위장한 북한 보위부 간부의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하면 나는 서울에 들어와 국보법 위반으로 안기부에 끌려가야 할 것이고 "아니오, 남쪽이 훨씬 잘 살지요"라고 대답했다간 어쩌면 서울로 돌아올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1990년 당시 분위기는 그러고도 남았다. 어찌

됐든 "예" "아니오"중 한가지를 대답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순간. 게다가 "서 선생이 답하지 않으면 오늘 밤 이곳을 나갈 수 없습니다" 하며 그는 노골적으로 겁을 줬다. 아... 어쩌란 말인가? 단독취재를 허용하는 척 하며 나를 선전용으로 이용하려는 계략에 말려들었다는 생각을 뒤늦게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었다.

무슨 답을 할 것인가?...그 난감한 순간, "하나님,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아주 짧고 강렬한 기도를 했다. 3-4초가 흘렀을까. 기막힌 답변이 섬광처럼 머리를 스쳐간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천천히 대답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똑 같습니다" "...예?" 의외의 답변에 당황한 듯 북측 기자가 다시 물었다. "그러니까 우리 북조선이 남쪽보다 더 잘 산다는 뜻이지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똑 같구요."

서너 차례 반복된 질문에 줄곧 같은 답변만 거듭하자 마침내 그는 "에이, 리영일 동무래 이상한 기사를 불러 왔구만. 오늘 취재는 끝내야겠어, 철수하자" 하면서 자리를 뜨고 말았다. 살았다! 위기의 순간 나를 구해준 한 마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똑 같습니다." 남쪽, 북쪽 어느 곳에서도 트집 잡을 수 없는 절묘한 이 답변이야말로 실로 위문현답(危問賢答)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지금 생각해도 가슴 뛰는 절체절명의 그 순간은 내 기억 속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을 대단한 '사건'이었다.



다 아는 얘기지만, 명절날 하지 말아야 할 질문 세 가지는 '학교는 어디 됐어?' '취직은 했어?' '결혼은 언제 해?'다. 이쪽은 가볍게 묻는 것이지만 답하는 사람은 곤란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퇴직하고 나니 답하기 힘든 질문이 하나 생겼다. "요즘 뭐해요?" 묻는 사람은 그냥 안부 인사겠지만 답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마땅히 할 말을 못 찾아 우물우물하게 된다. '퇴직, 그것도 정년 퇴직했으면 놀지 뭐하겠어요.'라고 속으로 답하면서도 선뜻 명함 한 장 내밀지 못하는 무능력에 자괴감마저 든다. 정년퇴직 회식을 하는데 어떤 이는 '축하합니다'라고 인사한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인가? 학교 졸업식처럼 다음 단계로 발전하기 위한 과정을 잘 마친 것을 축하한다는 의미는 아닐 텐데. 천수를 누리고 죽었다고 상가에 가서 축하한다고 할 건가? 덕담은 과거형으로 표현한 다니까 앞으로 축하할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미리 표현한 건가? 아무튼 퇴직에 대한 의미가 복잡한 가운데 나름의 관(觀)이라고 하기에는 뭇한 고집(?)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일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지 말자는 거다. 대학 졸업 후 MBC에서 30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생활을 한 때로부터는 딱 40년을 일

빼따선 기적소리

류근종(관리)

했다. 그 세월만큼 근로소득세를 납부했고 게다가 군대도 3년 갔다 왔으면 난 할 만큼 했고 이제 국가가 걱정할 문제라는 막연한 신뢰에 기초를 둔 생각이다.

얼마 전 한 일간지에서 6074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며 일하는 60대를 자랑스럽게 포장하여 소개했다. 인생 성공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나이 들어 일하는 건 수입보다 일 자체가 보람이라며 근로를 신성시하는 부추김도 잊지 않는다. 퇴직 후 집에 있는 것에 죄책감마저 들게 하면서 계속 일할 것을 은근히 강요한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니 어머니, 재교육을 받아서 새 일거리를 얻었느니 어머니 하는 재취업 성공자의 인터뷰도 한 문단 따 놓았다. 몇몇 특수한 사례를 너무 일반화한 거 아냐? 공연히 그런 인터뷰를 해서 여러 사람 불안하게 만들고 말야! 30여년간 하던 일이고 내가 제일 잘 하던 일도 용도가 다해 퇴직을 했는데 새로운 일을 배우면 그 재주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

'인생 이모작' 하라지만 요즘 젊은 애들 중 인생 일모작 개시도 못한 이들도 많은데 이모작한다고 경작지를 안 비워주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런데 그 신문은 내 속마음까지 읽었는지 은퇴 세대의 재취업이 젊은 세대의 일거리를 잠식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실어

놓았다. 공감은 안 되지만 반박할 능력이 없으니 받아들이기 수밖에. 먼저 은퇴하신 선배님들조차 '할 수 있다면 일을 놓지 말라'고 하신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항상 선배님들의 충고는 옳았다. 그래도 이 조언에 어깃장을 놓고 싶다. 같은 신문의 다른 면에 閑爲水竹雲山主 靜得風華雪月權(한가해야 물과 대나무, 구름과 산의 주인이 될 수 있고 고요해야만 바람과 꽃, 눈과 달을 누릴 수 있다)라는 글귀가 눈에 띄어온다. 내 적성과 취미에 딱 맞는 생활인 것 같다. 그래, 적극적으로 한가함을 즐기고 능동적으로 고요함을 고급지게 누리보자. 누리~~. 그런데 마우스가 취업포탈을 기억하는 것은 뭐지? 재취업 기사에 배 아파서 잠시 빼따선을 타봤다.

사우회에 가입하려고 사무실에 들르니 그간 경조사 장소에서나 종종 뵈던 선배님들께서 여가를 즐기며 반갑게 맞아 주신다. 회사에선 정년, 은퇴, 실버란 단어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는데 사우회에서 오랜만에 젊은이 대접을 받아 본다. 나 역시 선배님들을 뵈면 여전히 예전의 부장님, 국장님 모습으로 보인다. 찬란했던 시절의 추억을 공유하고 종종 반추하는 건 두루두루 좋은 일이다. 선배님들 자주 뵈겠습니다. '신고합니다. 신입회원 류근종은 2014년 1월 1일부로 MBC에서 사우회로 전입을 명 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TV보다 더 큰 세상, iMBC

iMBC는 시청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MBC**와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멀티미디어 포털 서비스를 운영하며 뉴미디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내외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폭넓은 콘텐츠 수급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음악, 영화, 게임, 교육, 공연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iMBC.

새로운 생각과 과감한 도전으로 세상을 향한 넓은 창이 되겠습니다.

